

블로그 이용형태에 따른 자기표현과 젠더의 상관관계

- 용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xpression based on the types of using the
Blog and gender

박화진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과 박사

Park Hwajin

Doctor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Design Crafts Departmen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여성성과 남성성

- 2-1. 여성성과 남성성
- 2-2.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
- 2-3. 사이버공간과 젠더

3. 연구 분석 및 연구 논의

- 3-1. 측정문항 : 블로그의 이용형태 3가지
- 3-2. 연구 가설
- 3-3. 연구 검증 및 해설
- 3-4 연구 분석의 종합적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과연 존재하는 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현실세계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하는 것부터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차이는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을 통해 이해시킨다(2-1). 융은 한 개인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사회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반대 성(여성, 남성)을 무의식 속으로 감춘다고 하였는데 그의 말을 인용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즉 융의 개념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을 통해, 현실세계에선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와 젠더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즉 여성은 관계-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남성은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유추한다. 물론 이외에 많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블로그 이용형태에 따른 자기표현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블로그 스크린에 반영하는 작성자가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 유의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표사례인 관계-지향적 특성과 자기-중심적 특성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결과, 사이버 공간이 아무리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은 블로그 스크린에 자기표현의 행위가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젠더의 특성이 묻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즉 사이버 공간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현실세계의 여성성과 남성성처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작성자의 태도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어 가면서, 컴퓨터 스크린을 통한 자기표현의 상호작용에 이바지하도록 돕는다.

주제어

사이버 공간, 블로그의 이용형태 3가지, 여성성과 남성성

Abstract

Summarizing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regarding the gender, it can be found that female has relationship-oriented characteristics whereas male has self-oriented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in addition to these characteristics. However, this study performed an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ship-oriented characteristic' which is an example of femininity and 'self-oriented characteristic' which is an example of masculinity in connection with the type of using blog.

As such, the difference between femininity and masculinity was formed from the society. This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s of anima and animus suggested by Jung. (See Section 2, 2-1) Furthermore, Jung suggested that an individual has both femininity and masculinity simultaneously, but seeks to conceal his/her opposite gender (female or male) in unconsciousness for adapting himself/herself to the society, which provided a chance for for suggesting the theme of this study.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s of anima and animus suggested by Jung,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through the survey specifying that "Do femininity and masculinity which have been formed from the society still exist in the cyber space where gender equality communication is possib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smooth personal relationship as a method of minimizing misunderstanding generated from mutual interaction through the blog.

Keyword

cyber space, the type of using blog, gender

1.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선 남성은 남성다움을, 여성은 여성다움을 강요하였다. 즉 성을 상호간에 유형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이 요구되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성역할의 구분선이 전통사회에 비해 오늘날 점차 모호해지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성 유형화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남아있다(장휘숙, 2002, p.62). 이처럼 오늘날까지 성유형화의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원형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내면에는 그 사람의 기억 외에 거대한 원형(Archetype)이 존재한다. 여기서 원형은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심적인 기관이다. 한 인간의 정신속에 인류가 경험한 것들이 침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형은 인종과 문화의 차이·지리적 차이·시대적 차이 등 시공의 차이를 넘어서 존재하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형태인 선형적 틀이자, 심적 구조 내지는 본능적 힘의 원천이다(이부영, 2008). 따라서 한 개인의 원형은 사고·사건·사물 등에 대해 각 개인이 지닌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전형으로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각 개인의 원형은 무수히 많은 유형들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비중의 크기도 다양하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원형은 많은 원형 가운데 하나로, 그 중에서 매우 특수하며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원형은 서로에 대해 인류 태초로부터 경험한 모든 것이 침전된 것이며, 성별에 따라서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원형과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 집단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관과 여성관에 의해 분류되어 있다(이부영, 2008, p.32).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는 융의 이론을 통해 이해시킨다. 이와 같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과 연관이 있어 생각할 계기를 만든다. 즉 연구 문제를 '현실세계와 달리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에서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 여성성과 남성성

인간은 인류 태초로부터 남성이 여성에 대해, 혹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 경험한 모든 것이 침전되고 선형적으로 결정된 형태, 즉 원형으로 남겨져 끊임없이 유전된다. 이렇게 유전되는 과정에서 원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나 유사한 방식으로 재생산되

면서, 우리의 느낌·사고·행동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보편적인 행동 특징을 조정한다. 이러한 원형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삶속에서 '여성적인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남성', 또는 '남성적인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여성'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Jung,2007). 융(Jung)은 이것을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즉 그는 정신의 내면을 남성의 경우 아니무스로 여성의 경우는 아니마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아니마는 남성적인 정신에서의 여성적인 측면이며, 아니무스는 여성적인 정신에서의 남성적인 한 측면이다. 이와 같이 융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주장하며, "모든 사람은 남성도·여성도,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생물학적 의미에서도 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Jung, 2007, pp.97-99).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융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을 기존 문헌을 통해 요약한다. 이는 현실세계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여성성과 남성성

인간은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에도 함께 적응하며 산다. 여기서 사회나 시대가 바라는 남성성과 여성성인 페르소나는 외적 인격에 속한다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소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의 내적 인격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서 무의식의 세계관, 인간의 내면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외적 인격(페르소나)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세계에도 외적 인격과 매우 대조되는 태도와 자세·성향이 생긴다. 이를 내적 인격이라 부른다. 즉 무의식 속의 아니마·아니무스는 바로 내적 인격이다.(이부영, 2008, pp.30-34).

한편 외적 인격이란, 페르소나로 간주한다. 여기서 페르소나(Persona)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배우가 썼던 가면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융(Jung)은 페르소나를 사회적 역할을 위한 원형의 하나로 제안한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규정하는데, 이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는 원형 중 하나가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압력가운데 '남성속의 여성성'·'여성속의 남성성'을 억제하는 압력이 있다. 강도나 보편성의 측면에서 이 성역할에 관한 압력은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우선 외형상 여성과 남성은 구별되어 시각적으로 변별성을 갖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육체적 성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또한 인간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여자와 남자-어머니와 아버지·아들과 딸·부인과 남편으로서 각각 해야 하는 성역할(Vivien Burr, 2002, p.13)¹⁾을 교육받으며 암묵적으로 사회적 성별 분화에 동의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기대로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체화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옴은 한 남성이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형성되어진 남성의 페르소나에 일방적으로 헌신하다보면, 무의식의 심혼인 '아니마'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다고 한다. 여기서 '아니마'는 자비심이 있으며 섬세한 정감을 갖으며,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다. 또한 어떤 영감·창조적인 통찰을 갖도록 하는 예감능력이 있으며 평온하다. 이와 같은 여성적 성질의 원리인 아니마는 일반적으로 에로스(Eros)라고 불리며, 남성 무의식의 기능이다.

따라서 남성의 페르소나에만 헌신하는 남성을 무턱대고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남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식화된 남성다움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는 나머지 자신의 아니마를 강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억지로 배제하는 경우이다(정인석, 2008, p.208). 이런 경우 남성은 융통성과 생동감·창조적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 경직되고 완고해지며, 일이나 말의 기계적인 반복을 일삼게 된다. 또한 감정의 윤택을 잃은, 석회화되고 메마른 사람이 된다. 이와 반대로 남성이 아니마에 휘둘리게 되면, 그 남성은 모든 일을 체념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늘 피로해하며 책임감이 없어지고 주책없는 행동을 일삼으며 술에 손을 대게 된다. 그리고 정에 약하여 곧잘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쉽다(이부영, 2007, p.139).

반면 여성이 여성의 페르소나에 일방적으로 헌신하면, 무의식의 심혼, 즉 '아니무스'와의 관계가 끊어

질 위기에 처한다(이부영, 2007, p.139). 여기서 '아니무스'는 아니마와는 다른, 논리적 질서·근거·공정·대담·활발함·현실적·합리적·추상적 사고·사유와 판단 능력 등을 말하며 남성적 성질의 원리를 뜻한다. 이를 로고스(Logos) 또는 이법(理法)(정인석, 2008, p.204)이라 한다. 따라서 여성이 여성속의 남성성인 아니무스의 의식화를 게을리 하면, 아니무스는 미숙한 인격으로 남고 부정적 아니마처럼 모든 가치를 깎아내린다. 이는 허무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으로 자아에 위협한 영향을 끼친다.

물론 한계점에 도달하는 느낌이 반드시 부정적 아니무스 때문만은 아니다(이부영, 2007, p.143). 아니무스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여성은 본래의 인간성을 남성적인 것으로 바꿔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남성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여성화의 위협에 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정신적인 성 전환은 전적으로 내부에 속한 기능을 외부로 옮기는 데서 나온 것이다(Jung, 2007, p.123). 이 경우, 남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처리에 민첩한 한편, 성격적으로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차 없이 잘못을 꾸짖으며 완고하고 오만을 피우는 여성이 된다. 또한 남에 대한 동정이나 동료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성적 판단 같은 것은 전혀 무력화된 상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은 주위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접촉하기 어려워져 거북하게 생각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결국은 고립되어 버리고 만다(정인석, 2008, p.210). 결론적으로 옴은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감춰진 자신의 반대 성에 일방적으로 외면하거나 헌신하다보면 정신건강에 해로움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옴의 개념을 인용하여 한 개인에게선 양성(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존하지만, 사회로부터 자신의 반대 성을 무의식 속에 숨긴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옴의 아니마, 아니무스의 개념은 '사회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과연 인간의 무의식 속에 감춰 왔던 반대의 성이 드러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에 관하여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정리한다.

2-2.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인 생김새가 다르다. 머리모양·옷차림·행동·정서표현의 양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의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성별 분화는

1) 역할(role):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연극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 즉 예를 들면 목사, 경찰관에게 부여되는 행동, 의무, 기대들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이다. 그러나 역할은 또한 상호적인 요소이며 상호작용을 암시한다.

환경과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홍순정 외, 199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속하는 성과 반대의 성을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구조-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의 여성성을 강화하여 여성은 '내면의 아니무스'·남성은 '내면의 아니마'를 억누른다. 심지어 거의 무의식의 수준으로 억압되고 내면화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의 여성성이 어떻게 강화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어떻게 축소·억압되어 성 유형화가 이뤄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성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생물학적 요인'·'부모·학교·또래 친구들의 영향'·'대중매체의 영향'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형화된 여성성·남성성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존 문헌을 통해 살펴본 후, 사이버 상에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현실 세계의 여성성과 남성성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2-2-1 부모에 의해 형성된 여성성과 남성성

사회화 과정을 통해, 최초로 내면화되는 원형은 어린이가 부모를 통해 내면화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다. 유아는 태어난 직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면서 서서히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분리된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개발한다(Turkle, 2005).

그리고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회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이성의 특성까지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이해한다. 이때 부모들은 유아가 성역할 정체성을 획득하기도 전부터 유아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장려하며 부적합한 행동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심리학회, 2000, p.221). 이 무렵부터 유아는 부모의 차별강화를 통한 성유형 학습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형성해간다.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출산 직후부터 아기가 '남아인가·여아인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다. 루빈(Rubi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출산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초산 부모들은 아이가 몸무게 혹은 활동성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에 대해서는 '크고 단단(강함)하고 민첩하며·튼튼하고·뽕뽕하다.'고 말하는 반면, 여아에 대해서는 '작고 연약하며·귀엽고·예쁘

다.'고 묘사한다고 한다(한국심리학회, 2000, p.221). 부모들이 자신들이 속하는 사회·문화에 알맞은 남성상·여성상을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으며, 자신의 아이가 그에 부합되기를 기대하며 '고정 관념적 성별화'를 적용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코비와 재클린(Maccoby & Jacklin)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딸과 아들의 행동 차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남아는 "원래부터 활동적이고 경쟁하기를 좋아하며 공격적이고 수선스럽고 지지분하지만", 여아는 "원래부터 얌전하고 깨끗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도우며 예의가 바르다"고 대답한다.(나임윤경, 2005, pp.16-17).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로 콘드리(Condry, 1976)의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는 성별을 감춘 젓먹이에게 인형이 갑작스레 튀어나오도록 장치된 장난감을 보여 주고 관찰자들로 하여금 아이가 장난감에 대해 반응한 것을 해석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여아로 인지하고 있는 관찰자들은 아이의 반응을 '공포'라고 표현하였으며, 남아로 인지하고 있는 관찰자들은 같은 반응을 '분노'라고 했다(Shaffer, 2005, p.605). 이 결과에 대해 심리학자 하이드(Hyde)는 감정 표현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성별에 따라 정형화된 것임을 지적한다. 즉, 같은 감정 표현을 남아의 것은 '분노'로, 여아의 것은 '공포'로 해석한다는 것이다(나임윤경, 2005, p.49-50).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모들의 잘못된 해석은 이후 아이들의 감정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부모의 차별강화를 통한 성유형 학습의 영향에 관하여 아이들의 장난감 세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여아와 남아에게 각기 다른 옷을 입히고, 장난감을 줄 때에도 여아에게는 '집안 살림과 아기를 돌보는 데에 사용되는 미니용품'·남아에게는 '블록·오토바이·로봇·자동차·스포츠 용품·총 등과 같이 '활동을 부추기는 장난감'을 주며 다르게 의사소통한다(나임윤경, 2005, p.43). 여기서 유아의 장난감은 올바른 행동 모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성별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장난감을 통하여 여아들은 협상(인형)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며, 남아들은 제어(이렉터세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별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Turkle, 2005).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의 격차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에 적합한 옷·장신구·소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아 또는 남아에게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양식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성을 인식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의 구성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동기·가치 및 행동들을 습득하고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장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은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화의 차원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를 '부모로부터 형성되어진 연구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한다. 즉 이미 사회로부터 길들여진 부모에 의해서 한 개인은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을 기존 문헌을 통해 요약한다.

2-2-2 기존문헌을 통해 살펴본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

개인은 자기가 속하는 성과 반대의 성을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구조,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사회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자신과 반대되는 성을 억압한다. 즉 한 인간은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적합하다고 규정하는 사회적 특성을 의식·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수용한 성역할 형태를 일생동안 지속한다는 것이다(Willis, 2001, p. 319).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을 여러 기존 문헌을 통해 [표 1]로 정리한다.

[표 1] 내향적 사람과 외향적 사람의 특성.

	남성성	여성성
Broverman (1972), Parsons (1970)	도구적 차원: 능동적·객관적·독립적·공격적·직접적·지배적·비정서적·유능함.	정서적 및 표현적 차원: 따뜻한·민감한·표현적·타자 집중·양육적임.
Mccune, Matthews (1976)	TV 등의 각종 방송매체 측면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짐.(독립적·자기 주장적 인물.)	독단적인 여성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짐.(보조적·의존적·복종적인 인물.)
홍순정 (1998)	신체적 측면: 강함·듬직함·큼·우락부함·빠름./ 도구적 특성: 공격적·독립적·지배적·성취 지향적·지도적·객관적.	신체적 측면: 아름다움·연약함·가냘픔·작음./ 표현적 특성: 의존적·협동적·양육적·수동적·감정적.
이미경 (1993)	남성다움(적극성): 유능함·합리성·자기주장이 강함.	여성다움(수동성): 의존성·비경쟁성 강함.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성은 감성적이고, 자기희

생적이고, 남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섬세하다는 것 등의 전반적으로 표현적이고 공감적인 차원인 관계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남성은 자기-주장적이고, 활동적이고,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독립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다는 등의 전반적으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인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진다. 물론 이외에 많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젠더적 특성과 현실세계의 젠더적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문제와 연관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3. 사이버공간과 젠더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간마음이 프로그래밍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인간이 컴퓨터를 통하여 마음과 자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Turkle, 2005). 즉 물리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신적·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식이 생성된다(Rheingold, 1993: 이재현, 2004, p.179. 재인용).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술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컴퓨터 속의 공간은 단지 기계적인 속성에 의해서만 작동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서로 간의 교류와 다양한 심리적 경험에 의해 움직인다(황상민, 2000, pp.49-49,65)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과 연관된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는 탈육체화되며, 자신의 외모·성별·수입·재산·권력·계급과 같은 신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는 민주주의적 기회의 확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 중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1.커뮤니케이션의 수단에 대한 접근권'과 '2.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평등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Herring, 1996).

첫째, 자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조작에 대한 가능성이 용이하다. 사이버 공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용이한 접근성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려웠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블로그의 게시판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태도·욕망·욕구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등 가능한 모든 주체에 대한 담론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정치인과 시민이 따로 약속잡고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사용자는 사회적 지위 같은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 혹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 비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처럼 한 개인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Herring, 1996).

둘째, 사회적 탈맥락화이다. 사용자들은 로그인한 아이디와 회신처·아바타·사진 등 이외에 실제 이름·성별·거주지는 드러낼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메시지에 담기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단서들(악센트·필체나 목소리의 품위·성별·외모 등)을 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접속하는 사람이 대학 총장인지·장애인·노인·노숙자인지 알 필요 없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Herring, 1996). 이것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세계보다 여성과 남성 간에 좀 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될 것이라 예측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헤링(Herring, 1993)은 사이버 공간이 민중적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은 학술적인 CMC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소수의 남성들이 자기홍보와 적대적 전략을 통해 수사적으로나 그 양에 있어서 담론을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이 공평하게 참여하려고 시도할 때, 여성들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참여를 비정당화하려는 남성들의 반응에 의해 검열당할 위험을 겪는다. 여성이 직접적인 대립에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여성은 이런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참여를 회피하게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이 성 평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컴퓨터 스크린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사이버 공간의 젠더적 특성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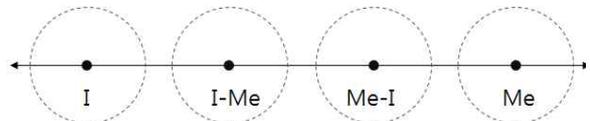
3. 연구 분석 및 연구 논의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하여 연구 가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연

구 가설의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기간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0월 26일까지 13일 동안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한정하며 한국의 한남대학교 학생 182명(남성 103명·여성 79명)과 경동대학교 학생 176명(남성 73명·여성 103명)이다. 여기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블로그의 주된 사용층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5년 8월 한 달간 연령대별로 블로그 보유율을 조사한 한 연구사례가 입증한다. 즉 19세~25세 사이에서 전체 86.1%의 응답자가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영주, 2005, p.107). 실제로 이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블로그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다. 한편 측정문항은 블로그의 이용형태에 따른 자기표현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한다. 여기서 블로그 이용형태의 3가지는 인간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기반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1.대리만족형·2.일지형 식형·3.인맥관리형)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성 평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이 과연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이 존재하는가?

3-1. 측정문항 : 블로그의 이용형태 3가지

본 연구는 블로그 이용형태의 분류과정을 내향성과 외향성의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로그의 자기표현에 맞춰 측정항목을 추출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향하는 내향성과 외부세계를 향하는 외향성의 두 갈래가 상반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방향 설정인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 자아의 페르소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내향성과 외향성은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방향에 초점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페르소나가 결정된다. 이는 I·I-Me·Me-I·Me의 4가지로 분류된다.



[그림 1]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4가지 분류.

여기서 'I'는 타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직 자기 안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대리-만족형'이다. 이 형은 때로는 미성숙하다는 평가받기도 한다. 'I-Me'는 자아가 우선

2) 박화진(2009), 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자기표현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에 관한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긴 하지만 타자의식이 약간은 존재하는 사람으로, 타자의식이 약간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일지형식'이다. 'Me-I'는 타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자아가 존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인맥관리형'이다. 'Me'는 자신을 없애고 완전히 타자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Me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며 타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신이 아니고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블로그의 이용 형태에 따른 자기표현을 크게 '1.대리만족·2.일지형식·3.인맥관리'로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블로그는 개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즉 블로그는 대리만족의 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육체 이탈·체험에 대한 욕구를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기계에 육체를 넘겨주고, 물리적 신체를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두 장소에서 동시에 상호 연결되도록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체를 재배치하고 다방면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신분·성별·인종적 제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 생활에서 이미 형성된,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 힘(다이어트, 성형수술 등) 없이 갈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블로그를 통해 실현하여 대리만족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Wolf & Perron, 2003). 이러한 이유로 블로그는 욕구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블로그는 자아 노출의 매개 수단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즉 블로그는 공개되어진 일지형식이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특성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전달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블로그는 형식상 주로 짧은글로 이루어진 일기(일지)형태로써 블로거의 자아 반영적 차원을 드러낸다. 실제로 "blo. gs(2003, 봄)"사이트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203개의 영어를 이용한 블로그를 통해 "블로거 자신의 일상을 담은 일지형식·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링크·적은 수의 코멘트" 등의 특징을 밝혀낸다(Herring & Scheidt et al, 2004,2005, pp.142-171; Tremayne, 2008, p.9). 같은 맥락으로 파파차리시(Papacharissi, 2004)는 블로거가 호스팅하는 260개의 블로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즉 블로그가 독립 언어보다는 개인 일지 형식을 더 많이 취한다고 지적한다(Tremayne, 2008, p.9). 또한 샴 선더 외(Shyam Sunder et al)는 블로그에선 사람

들의 태도와 신념·느낌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므로, 아마도 더 진솔하고 독립적인 표현을 가능토록 한다고 말한다. 또한 블로그의 기술은 정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보이며, 사용자의 의해 자기 고백적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로그 상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은 일기쓰기와 유사하며, 이에 대한 심리 연구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저널 형식의 글쓰기가 가진 유용성을 통해 입증한다. (Tremayne, 2008, p.142). 물론 전통적인 일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도구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펜을 사용하여 쓰는 현실세계의 일기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만,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블로그의 일기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블로그들은 친구·가족 그리고 우연하게 들르는 온라인 방문객들이 읽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되기도 한다(Tremayne, 2008, p.50).

셋째, 블로그는 사회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지닌다. 즉, 블로그는 인맥관리이며, 일대일·일대다·다대다 커뮤니티의 기능이 포함된 공간이다. 여기서 퍼트남(Putnam, 2000)은 블로그에 관하여, 결속적(bonding) 기능과 교량적(bridging)기능의 두 가지 측면을 주장한다. 즉 블로그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결속적 기능은 어떤 조직 내부의 단결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교량적 기능은 서로 이질적인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결속적 기능은 블로그의 이웃 맺기를 통한 주변동료들과의 교체 활동이며, 일종의 교량적 기능은 블로그의 검색이나 랜덤과 같은 기능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다. 물론 교량적 기능을 통해 접한 뒤 이웃 맺기를 통해 자기이웃으로 관계를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교량적 기능에서 결속적 기능으로 변화하게 된다(Putnam, 2000; 김익현, 2005, p.39 재인용).

따라서 블로그는 일기형식이나·감상기록과 같은 자기 반영적 자아표현이 가능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특징도 동시에 지니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준다(김영주, 2005, p.42).

3-2. 연구 가설

[연구 가설 1] 사이버 공간은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의 자기표현은 젠더적 특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블로그가 성평등한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지라도, 여전히 성장배경과 사회적 배경·문화전반에 따른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역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한 연구 사례의 경우, 블로그 공간에서 젊은 남성은 평균적으로 높은 공격성·경쟁심·지배성 그리고 과제-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여성은 좀 더 관계-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Willis, 2001, p.319)고 한다. 또한 뉴스그룹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워싱턴 대학의 말콤 팩스와 코리 플로이드(Parks & Floyd)는 여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남자들에 비해 사교성이 높으며, 타인과 친해지려는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Willis, 2001, p.235)고 한다. 이는 2장에서 언급했던,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컴퓨터의 숙달에 있어 성별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한 셰리 터클(Turkle, 2000)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선들을 큰 관점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성별에 따라 부드러운 숙달과 강한 숙달(Hard mastery & Soft mastery)로 분류된다고 한다. 즉 여자 아이들은 예술가의 숙달인 부드러운 숙달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계획을 짜는 사람이나 기술자의 숙달인 강한 숙달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사회로부터 부여받아왔던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이 컴퓨터 숙달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urkle, 2000). 이렇듯 대부분 문화적·사회적 관념으로부터 형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이 블로그 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관념으로 인해 한 인간은 자신의 반대 성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무의식 속에 잠재시킨다는 융의 개념을 기반으로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물리적 신체에 대한 제약이 적은 사이버공간에서 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숨겨왔던 반대의 성인 아니마, 아니무스가 스크린에 반영될 가능성으로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3.3. 연구 검증 및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블로그의 이용형태의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자기표현에 관하여 측정문항을 추출한다. 이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 이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인 1(.843), 요인 2(.820), 요인 3(.766)으로 나타난다.

[표 2] 블로그 이용형태에 대한 신뢰도 검증³⁾.

구분	요인	항목수	신뢰도
블로그 이용	1	9	.843
	2	9	.820
	3	6	.766

[표 3]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유의미한 차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남성의 경우 자기-만족형이 85명(48.3%)·사회-관계형이 74명(42.0%)·자기-노출형이 17명(9.7%)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사회-관계형이 98명(55.1%)·자기-만족형이 62명(34.8%)·자기-노출형이 18명(1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 < .05$).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여성성과 남성성의 비교분석⁴⁾.

성별 구분	유형						$\chi^2(p)$
	인맥-관리형		일지-형식형		대리-만족형		
	N	%	N	%	N	%	
남성	74	42.0	17	9.7	85	48.3	6.965* (.031)
여성	98	55.1	18	10.1	62	34.8	
합계	172	48.6	35	9.9	147	41.5	

* $p < .05$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젠더적 특성은 현실세계의 젠더적 특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여성은 감성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남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섬세하다는 것 등의 전반적으로 표현적이고 공감적인 차원인 관계-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남성은 자기-주장적이고, 활동적이고,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독립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다는 등의 전반적으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인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진다(2-2-2참조)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제약이 적은 사이버 공간일지라도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 분석을 통해 검증받는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그 작성자가 자기표현을 함에 있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즉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이도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나

3) 박화진(2009),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자기표현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에 관한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박화진(2009),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자기표현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에 관한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시대가 바라는 남성성·여성성의 영향으로 인해 무의식 속에 감춰왔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드러낼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남성과 여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남성은 여성적 요소를, 여성은 남성적 요소를 살려서 의식에 통합해야 만이 건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에서 시작된다.

즉 융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마음의 요소(아니마·아니무스)가 항상 균형 잡힌 상태에서 과불급이 없이 서로를 떠받쳐 주고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한 개인은 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도록 만든다. 또한 성평등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공간과도 연관시킨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은 사회적 관념으로부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벗어나서 개인화 하고자 하는 욕구, 즉 억압되어왔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발현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사이버 공간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형성되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형이 그대로 반영됨을 확인한다. 즉 남성은 1. 대리-만족형·2. 인맥-관리형·3. 일지-형식형 순으로 대리-만족형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여성은 1. 인맥-관리형·2. 대리-만족형·3. 일지-형식형 순으로 인맥-관리형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이것은 2장에서 언급한 남성의 자기-중심적 특성과 여성의 관계-지향적 특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또 다른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인간이 제약조건이 적은 평등한 공간에서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억제해왔던 자신의 반대 성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의 한계로 인해, 블로그의 자기표현에 관한 논제만 다루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관찰자 측면에서 분석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논제를 가지고 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스크린을 통해서 살펴보는 관찰자 측면에서도 조사할 필요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성민(1999), 융의 심리학과 종교, 동명사.
- 김익현(2005), 블로그 파워,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주(2005), 블로그: 1인 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재단.
- 권석만(2004),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 나임윤경(2005), 여자의 탄생, 웅진지식하우스.
- 레베카블러드(2003), 블로그 Blog, 정명진 역, 전자

신문사.

- 마크트레메인(2008),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 이동훈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경배(2001), Cyber is..., 사이버문화연구소, 역사넷.
- 박성호 외(2007), Blog Marketing, 매경출판.
- 박화진(2009), 사이버 공간에 나타난 자기표현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에 관한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혜련(2006),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살림.
- 워렌 패럴(2002), 남자 만세, 손희승 역, 예담.
- 융 외(2007), C. G.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선영사.
- 융(2007), 인격과 전이, 한국융연구원,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숲.
- 이부영(2006), 분석심리학, 일조각.
- 이부영(2007),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 이부영(2008),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 이와쓰키 켄지(2003), 남자는 왜 여자를 바보라고 생각할까?, 박혜경 역, 넥서스 books.
- 이재현(2004),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태연 외(2006), 인간관계의 이해, 신정.
- 자크 라캉(1994), 욕망 이론, 민승기 역, 문예출판사.
- 정인석(2008),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대왕사.
- 켈빈S. 홀(2004), 융 심리학 입문, 김형섭 역, 문예출판사.
- 패트리샤 윌리스(2001), 인터넷 심리학, 황상민 역, 에코리브르.
- 한국심리학회(2000),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 홍순정 외(1998), 여성 심리학, 교육과학사.
- 헬렌 피셔(2005), 제1의 성, 정명진 역, 생각의 나무.
- 황상민 외(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박영사.
- 황상민(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21세기북스.
- David R.Shaffer(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 역, 시그마프레스.
- Vivien Burr(2002), 사회적 성별과 사회심리학, 황정은 역, 시그마프레스.